

[보도자료] 쿠팡, 2021 경북세일페스타 진행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 앞장서

2021. 10. 11.



- 경상북도 소재 영세,중소상공인 230여개 참여 2천여개 상품 할인가 판매
- 소상공인 아낌없이 지원하는 다양한 상생 프로모션 선보일 것

2021. 10. 11.서울 — 쿠팡이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판매 지원에 적극 나선다. 쿠팡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함께 경상북도 소재 중소상공인의 우수상품을 한 곳에 모은 '2021 경북세일페스타'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.

10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경상북도 소재 230여개 영세중소기업이 참여해 2천여개 상품들을 선보인다. 고객들은 행사 기간동안 경상북도 지역 농수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, 생필품, 홈인테리어, 주방용품, 기타잡화 등 카테고리별로 우수한 품질과 경 쟁력을 갖춘 다양한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.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쿠팡은 중소상공인의 제품들이 쿠팡앱과 웹 사이트에서 더 잘 노출되고, 판매될 수 있도록 마케팅, 광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
'2021 경북세일페스타'에 참여한 경상북도 소재 영세중소상공인들 중 일부는 최근에 진행된 '상품품평회'를 통해 쿠팡 입점과 행사 참여의 기회를 얻었다. 앞서 쿠팡은 지난 7월에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경상북도 서부권 소재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품 품 평회를 진행했다. 쿠팡은 상품 품평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쿠팡 입점 방법을 안내하고, 온라인 판매가 생소한 지역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매 정보를 제공했다. 또 쿠팡 카테고리별 브랜드매니저(BM)들이 직접 품평회에 참석해 마케팅, 홍보, 상품검색 등 온라인 판매의 노하우를 현장에서 컨설팅하는 시간도 가졌다.

앞으로도 쿠팡은 지역 상생 기획전, 쿠팡 입점 상품 품평회 등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선보이며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.

쿠팡 관계자는 "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들은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지역 중소상공인의 우수한 상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"며 "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"이라고 말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